

최윤구(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홍보팀장)



**앞으로는 인터넷 홍보를 하는데 있어 SNS가 대세란다.....**

세계 대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교육과 문화를 교류하는 스포츠올림픽,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의 개최지가 광주로 확정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SNS에서 활동이 많을 것이라면서 2015유니버시아드의 SNS홍보를 위해 그해 9월 '뉴미디어 팀'이 신설되고, 나는 팀장을 맡게 되었다.

그 동안 인터넷 검색만 하였던 블로그 운영이라던가 그 외의 기능을 운영하는 것은 나에게 먼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때다. 그런데 SNS란 용어부터 들어오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참으로 막막한 업무다. 아무런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함께 배치 받은 직원들도 모두가 똑같았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이며,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또 블로그도 운영해야 한단다. 아이궁~

그럼 트위터는 무엇이고, 페이스북은 무엇이야? 하나하나 열어보고, 회원 가입하고, 기능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무

엇보다 앞으로 유니버시아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증을 충분히 채워줄 만한 책도 사이트도 없었다. 단순하게 기능 안내 정도밖에...

그렇게 헤매고 있던 중 광주시청자미디어 센터에서 마련한 SNS교육 '소셜미디어를 Do Do려라' 프로그램에서 소셜웹전문가클럽 vCorea 유영진 대표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어디선가 획 스쳐가면서도 마음 한 곳에 심장을 두드리는 SNS Do Do...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영진 대표를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고, 2015유니버시아드를 위한 SNS운영에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지난 1년여에 걸쳐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포럼&광주소셜웹리딩그룹의 SNS무브먼트, 무료교육을 통해 나 자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며, 2015유니버시아드를 알리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물론 나도 페이스북과 QR코드 활용 등에 대해 강의와 서포터즈로 보답했다.

SNS를 통하여 2015유니버시아드를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금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지와 그룹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트위터도 함께 운영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

과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SNS를 통하여 2015유니버시아드를 홍보하는데 기초는 다졌다고 본다.

앞으로 2015유니버시아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셜웹 홍보 채널을 다변화하기 위해 포털업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블로그와 유튜브의 활용을 확대하고, 구글 기능을 접목하면서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카페, 미투데이, 요즘, 메타블로그 등 활용 가능한 SNS를 효율적으로 연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SNS로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홍보하면서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기를 기대한다.**

유니버시아드가 그동안 유럽에서는 올림픽 다음 가는 빅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추어 성격이 짙다는 느낌으로 아시안게임 다음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참가국이 아시안게임은 40여 개국이지만 유니버시아드는 170여 개국이나 되는 빅이벤트이며 무엇보다 향후 각 나라의 미래를 짚어질 차세대 리더들의 집합체이자 교류의 장이기 때문이다.

2015유니버시아드가 비록 광주에서 개최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회이고, 찾아오는 외국인은 광주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방문할 수 있고, 또 이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

아오는 관광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015유니버시아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대회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2015유니버시아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 홈페이지 <http://www.gwangju2015.kr>
- 공식블로그 <http://gj2015.tistory.com>
- 페이스북(페이지)  
<http://www.facebook.com/Gwangju2015>
- 페이스북(프로필)  
<http://www.facebook.com/2015universiade>
- 페이스북(서포터즈 그룹)  
<http://www.facebook.com/groups/supporters1>
- 트위터  
<http://twitter.com/2015Universiade>
- 대학생 홍보대사 블로그  
<http://blog.daum.net/hi-yuni>
- 카페 <http://cafe.naver.com/light2015>

2015년 7월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되기까지는 3년 반 남짓, 이제부터는 SNS를 통하여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날개를 달아야 할 시점으로 생각한다.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아 온 블로거클럽과 광주소셜리딩그룹, 광주포럼에서 2015유니버시아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할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 SNS는 따로 생각할 겨를이 없다.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에 이어 2012년에는 스마트TV로 일상 스타일이 넘어갈 거라고 한다.

그렇다고 SNS는 두려울 것이 없다. 같이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어울리고, 지식을 공유하면 해결된다. 일단 SNS바다에 한 발이라도 담가보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나 또한 그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새로운 길과

내 개인생활과 직장에서 SNS를 어떻게 접  
목해나가야 할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고  
있다. 급변하는 SNS환경 속에서 SNS가 내  
생활, 내 지역,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밝

게 만들어 갔으면 한다." 2015유니버시아드  
지향하는 슬로건 "Light Up Tomorrow"  
처럼...